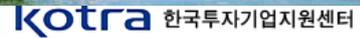


# 베트남 투자 뉴스



## ■ 경제뉴스

- 베트남 국가경쟁력 순위 70위 차지
- 8월 베트남 구매관리자지수, 아직도 50선을 밑돌아
- 베트남자산운용공사, Agribank의 부실 채권 구매 예정
- 외투기업,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해 우려 표명
- 베트남의 사업 환경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는 유럽 기업들
- 30%를 밑도는 일본 제조회사의 부품 현지화 비율
- 베트남산 농산품 수출 부진
- 베트남 Smart Link, ATM과 POS 단말기 서비스까지 확대
- 베트남, 방송서비스 발전 계획 : 비독점 채널 구성
- 신학기 시작에 따라 PC 판매시장 회복세
- CJ, 베트남 칠리경작 시작
- 사회적 책임 활동에 앞장서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

## ■ 입찰정보

- ◇ Package 1.4 - Danang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Project

## ■ 전문가 칼럼

- ◇ [법률 Q&A] 상표 가치의 법인 자본금 현물 출자 - 법무법인 로고스 정대근 미국 변호사

## ■ 기타 안내

- ◇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아동 인권 보호 안내 등 협조 요청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베트남 투자뉴스는 하노이/호치민 무역관 공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베트남 국가경쟁력 순위 70위 차지

- 세계 경제포럼의 2012~2013 글로벌 경쟁력 리포트에서 베트남은 전년대비 5단계 상승한 7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0년 59위, 2011년 65위로 추락, 2012년에는 75위 까지 추락하였으나 금년에 다시 상승하였음. 리포트에 따르면 금년 순위 상승은 거시 경제적 환경(87위, 전년대비 19단계 상승)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물가상승률은 20%에 육박하였으나 2012년에는 한자리 수로 억제되었으며,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의 향상도 있었음. (13위 상승한 82위)
- 베트남은 또한 법인세 인하와 낮은 무역장벽으로 인해 상품시장효율성에 있어서도 발전하고 있으나 베트남 경제와 발전기반에 대한 취약점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노동시장효율성(56위, 전년대비 -5단계)과 금융시장 발전(93위, 전년대비 -5단계)을 비롯한 몇 개 부문에서는 약세를 보였으며 기술적 준비분야는 전년대비 4단계 추락한 102위를 기록함.
- 2006년 이후로 베트남은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큰 기복을 보여 왔음. 베트남은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크게 상승한 뒤 그 뒤로는 가파르게 추락했음.

- 출처 : Saigon Times Daily, 9.5일 -

## 8월 베트남 구매관리자지수, 아직도 50선을 밀돌아

- HSBC 은행에서 발표한 8월 베트남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 7월에 기록한 48.5에 비해서 향상된 것이며, 4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 그러나 아직 50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제조/생산 환경에 있어서 약간씩 악화되는 경향을 의미함.
- 구매관리자지수가 50선을 넘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나타내며 5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하락세를 의미함.

- 베트남의 제조업자들이 새로 받은 주문은 8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하락하여 현재의 하락세는 4달째 연장됨.
-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수출주문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줌. 미약하지만 이러한 하락세는 3달간 계속되고 있음. 수출시장의 동향은 계속해서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안정세로 접어드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음.
- Trinh Nguyen, HSBC 아시아 경제학자는 “베트남의 제조활동은 약한 외부수요와 부진한 국내 사정으로 압박을 받겠지만 시장 축소 정도는 매우 감소하였다.” 라고 말함. 또한 “국제적인 수요는 미국, 유로존,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경기호전 덕분에 연말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실은 분명 제조업 분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투입가격의 상승과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국내상황을 감안하면, 베트남의 경기회복은 앞으로도 험난할 것이다” 라고 견해를 밝힘.

- 출처 : Saigon Times Daily, 9.4일 -

## 베트남자산운용공사, Agribank의 부실 채권 구매 예정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은행(Agribank)은 현재 10조 동에 달하는 부실 채권을 베트남 자산운용공사(VAMC)에 팔려고 하고 있는 만큼 VAMC의 처음이자 최대 고객이 될 것임
- 익명을 요구한 VAMC의 정보통에 의하면 농업은행의 부실채권은 올해 1분기 말 부로 10%를 넘어섰음. VAMC의 부실채권 거래 위원회는 지난 2주간 예닐곱 명의 채권자들을 만났음. 채권자들은 VAMC를 연구하거나, 연계를 쌓거나 정보를 교환하고 싶어하는 축임.
- 다른 국유 채권자들 또한 부실채권 판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VAMC와 접촉했음. 국유 채권자들은 신용 및 채권 운용역들에게 VAMC와 협력할 준비를 해 달라고 했지만 양쪽 모두 정확한 부채 거래 규모나 부채의 양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 VAMC의 대표 중 한 명은 국영 은행들이 더 교섭하러 오는 것은 환영이라고 말함.
- 처음 알게 되는 부채는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지만 계획과 그 외의 필요 절차들을 준비한 상태고 공적인 지시가 내려오자마자 엄격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VAMC의 상임부회장인 Nguyen Quoc Hung이 말함. Hung이 말한 공적인 지시란 VAMC의 설립, 조직, 운영에 관한 칙령 53/2013/NP-CP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 문서나 책자를 말함.
- 또 다른 VAMC 대표는 “오늘 아침에 저희는 부채 처리와 거래 규제 전반에 대해 토론했지만 더 이상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시를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칙령 53조는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부실채권을 처리하려면 더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전함.

- 부실 채권 취급에 대한 시행규칙이 다음 2주 내에 발행되기 위해 중앙은행에 의해 준비되고 있음. 이 시행규칙은 VAMC 관계자들의 부채 계산, 담보 및 관련 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많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임.
- 관련 뉴스에서, VAMC의 상반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10개의 상장 은행의 잠재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부채인 5그룹 부채가 1월~6월 사이에 33% 증가함.
- 이 은행들의 회수 불가능 채권은 작년 말에 11조 5250억 동이었던 데 반해 6월 말에는 15조 3150억 동에 달함. 이 열 개의 은행들은 ACB, Navibank, Southern Bank, BIDV, Eximbank, Sacombank, Vietcom bank, SHB, Military Bank, Techcombank를 포함함.
- 이들 중 Techcombank는 상환 불가 채권 증가율이 8970억 동에서 1조 5000억 동으로 67%나 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ACB의 증가율은 55%였음. SHB는 지난 6월에 9%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보였고 5그룹 부채는 2조 670억 동에서 3조 1860억 동으로 54%가 증가함. Southern Bank의 5그룹 부채는 19% 준 6490억 동이었고 Eximbank는 1% 떨어진 7285억 동이었음.
- Navibank, SHB, Techcombank의 3,4,5그룹 부채는 3% 이상이어서 은행들이 VAMC로 부채를 팔아야 할 형편임. 이들 은행의 각각의 부실 부채 비율은 6.1%, 9%, 5.3%임.
- BIDV와 SouthernBank만 작년 동 분기에 비해 세전 수익이 상승했음. 나머지 8개 은행의 세전 수익은 하락했으며 그 중 가장 하락이 컸던 것은 91% 떨어진 Navibank였음.

- 출처 : Saigon Times Daily, 8.23일 -

## 외투기업,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해 우려 표명

-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투자환경은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은 베트남을 떠나거나 투자규모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난 금요일에 열린 호치민시 당국과 외국기업들간의 모임에서 WOOJIN VINA 대표 겸 한인상공인연합회 경영자문위원장은 투자, 노동, 환경, 그리고 세제 관련 법령의 급격한 변화로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함.
-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음. 백인기 대표는 또한 환경 관련 새로운 규제로 많은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중단하거나 현재 베트남에 있는 공장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언급함.

- Nicola Connolly 유럽상공회의소 의장은 산하 다수의 기업들이 베트남 내 투자환경의 악화를 걱정하며 그들의 사업을 다른 국가들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 최근 유럽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최대 20%가량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베트남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ASEAN 시장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 Connolly에 의하면 비록 80% 가량의 기업들은 아직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시장에서 사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20%의 기업들은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서 베트남 내 사업환경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함.
- Kimio Yamaguchi, Sojitz Vietnam 총재이자 호치민시 일본경제연합회 회장은 비록 일본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베트남의 사업환경은 아직 기대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함.
- 지금 많은 일본기업들은 열악한 물류환경과 운송서비스, 교통안전문제 그리고 복잡한 세금과 세관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추가근무에 대한 제한과 강요된 최소한의 임금상승 역시 기업의 사업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음.
- Herb Cochran 미국상공회의소 이사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은 투자환경을 더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행정기관들은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의지를 꺾어 서는 안 된다는 의견임.
- Cochran은 예를 들면서, 정부는 전기와 수도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투자 라이선스 발급 절차는 반드시 간소화 되고 빨라져야 하며 기업들을 위한 납세와 행정절차는 좀 더 쉬워져야 한다고 말함.

- 출처 : Saigon Times Daily, 9.3일 -

## 베트남의 사업 환경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는 유럽 기업들

- 주변 국가와 비교해 베트남의 사업 환경에 대해 흥미를 잃어 가는 유럽 기업의 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심지어 사업체를 주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심사숙고 하고 있음.
- 지난 유럽 상공 회의소가 발표한 분기별 기업경기 지수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수의 유럽 기업들이 베트남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절반이 서비스 산업 분야 기업 이었고, 4분의 1이 제조업, 나머지가 무역 및 다른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이었음.

- 조사에 참여한 기업 다섯 개 중 1개가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아세안 시장으로의 사업체 이전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베트남 사업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주변국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비롯된 것임.
- 베트남이 주변국가와 비교해 이상적 투자지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아래의 평가를 통해서도 대략 알 수 있음
- 조사 응답자 중 45%가 베트남이 아닌 다른 아세안 국가가 사업 목적지로서 더 낫다고 평가했으며, 37%가 베트남은 평균적인 수준이라 답 했고, 18%만이 베트남의 사업 환경이 주변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답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중의 80%는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이전할 것을 고려할 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는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 장기간 베트남 시장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함.
- 유럽 상공 회의소 대표 Preben Hjortlund는 많은 유로참 회원 기업들이 이 곳 베트남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응답자 중 상당수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을 더 나은 잠재적 사업 목적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움과 동시에 걱정할 만한 사항이라고 덧붙임.
- 유럽 기업들은 베트남의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전반적인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조사 응답자의 43%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지난 분기 대비 8퍼센트 오른 물가 상승률이 그들의 사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지난해 49%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임. 조사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은 5.94%였는데 지난 분기 예상치 5.13%와 차이가 있는 수치임.
- 지난 분기, 단지 응답자의 48%만이 거시 경제 환경의 악화를 예상했음.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거시 경제 환경의 악화를 예상 했고, 이는 더 안 좋은 결과임.

- 출처 : Saigon Times Daily, 8.28일 -

### 30%를 밀도는 일본 제조회사의 부품 현지화 비율

- 일본무역진흥회에 의하면 베트남 최대의 해외 투자국인 일본의 현지 제조회사의 현지 부품 사용비율이 30%를 밀돌고 있다고 밝힘.

- 베트남에 있는 일본기업들에게 현지에서 투입되는 재료와 부품은 고작 27.8%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43%, 태국의 53%, 중국의 61%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
- 어제 하노이에서 열린 부품소재산업전시회 개막식에서 일본무역진흥회 Daisuke Hiratsuka 부총재는 "베트남의 인건비가 상당히 낮고 중국, 태국과 같은 주변 국가들과 충분히 경쟁 할 수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 시 부품 수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고 부품 수입이 생산비용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라고 설명함.
- Hiratsuka부총재는 또한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힘.
- 일본무역진흥회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프로젝트는 4월 이전까지 총 1,900개로 나타났으며 총 투자금액은 318억불로 집계됨.
- 작년 일본의 베트남시장에 대한 신규자본 투입은 43억불 규모였으며 외국의 신규자본 투자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임.
- Hiratsuka 부총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일본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이전하며 베트남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힘.
-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가입과 2020년까지의 산업화를 준비하고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이 시급함.

- 출처 : Saigon Times Daily, 9.5일 -

## 베트남산 농산품 수출 부진

- 올해 8월까지 베트남 주요 농산품의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쌀과 커피는 수출량과 금액에서 극심한 감소 수치를 보였고, 차는 유일하게 수출금액이 증가함.
- 최근 농업농촌개발부의 발표에 따르면 8월의 농업, 임업, 수산업품의 총 수출금액은 23억 9천만 달러이며, 연초 8개월간의 수출금액은 179억8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전함.
- 올 연초 8개월간의 주요 농산물의 수출금액은 89억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하였음.
- 2013년 연초 8개월간의 농임수산업 수입금액은 전년보다 10.6% 증가한 120억9천만 달러로 나타남. 따라서 올 8개월간의 베트남 무역수지는 58억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농산품 중 가장 수출이 부진하였던 품목은 쌀로 2013년 연초 8개월 동안 수출은 수량 469만톤, 금액 20억5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7%, 18.4% 큰 폭으로 감소함. 올 8월 수출은 64만3천톤, 2억2백만 달러를 기록함.
- 쌀 수출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7개월 동안 평균 수출가격은 톤당 438.49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2% 낮아짐.
- 중국은 여전히 베트남 쌀의 가장 큰 수출 시장임. 올해 연초 7개월 동안 중국으로의 수출은 147만톤, 6억 913만 달러에 달하며, 총수출 금액의 32.8%를 비중을 차지함.
- 전년동기 대비 중국시장으로 수출되는 쌀의 수출량은 9.6% 수출가치는 6.8%로 잇달아 상승함.

- 출처 : VnEconomy, 8.27일 -

## 베트남 Smart Link, ATM과 POS 단말기 서비스까지 확대

- 베트남의 카드 서비스 회사인 스마트링크(Smart Link)는 뱅크넷(Bank Net vn)과 협력해 ATM과 POS 단말기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발표함.
- 이에 따르면, 스마트링크의 시스템을 통하여 VCCB, Kien Long Bank, MDB, Shinhan Bank Vietnam의 국내 카드 소유자들은 1만 6천여대의 스마트링크와 뱅크넷 베트남 ATM기계에서 잔액조회를 하거나 출금이 가능하게 됨.
- 또 VCCB와 Kien Long Bank, MDB, OCB Lien Viet Post Bank의 카드 소지자는 10만 5천여대의 Pos단말기를 통해 전국 상업지구의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식당, 호텔 등에서 물건을 구매, 계산이 가능하게 됨.
- 이러한 서비스 연계는 카드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발전하는 ATM, POS망을 통해 전자 결제 서비스 이용에 편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스마트링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기반이 됨.
-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지도에 따라 스마트링크와 뱅크넷, 이 두 베트남 기업의 협력을 다지는 초기단계이기도 함.
- 올 상반기 동안 스마트링크 시스템은 2012년이 비해 114% 증가한 3340만 건의 거래를 성공처리함. 그리고 거래실행 금액 34조 동으로 2012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함.

- 출처 : VnExpress, 8.20일 -

## 베트남, 방송서비스 발전 계획 : 비독점 채널 구성

- 베트남 총리가 승인한 2020년 베트남 방송서비스 발전 계획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가와 지역 중요 정치, 정보 전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70~80여개의 방송 채널이 생겨남. 수요에 따라 약 40-50개의 채널과 베트남 개별 유료 TV서비스가 공급됨.
- 이와 더불어 시장 체제에 따라 유료 TV간의 공정한 경쟁이 형성이 되고 최신 기술에 따른 지속적 발전에 부응, 2020년에는 TV와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화함. 방송채널은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풍부한 내용으로 품질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
- 이 계획안의 목적은 독점화를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국제시장 진출하는 것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아날로그 방식의 케이블 TV 기업의 수는 점차 줄일 계획임.
- 2015년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전국에 약 30-40%의 가구수 유료 TV서비스를 사용하고 2020년까지 60-70%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함.
- 베트남은 현재 20%의 가구가 SCTV, VTC, VCTV, K+, HTV, VTV 등과 같은 대표적인 유료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450만 명에 이룸. 그 중 VTV가 약 80%를 차지(산하방송국 포함)
- 최근 정보통신부는 비엠텔(Viertel)과 FPT에게 유료 TV 서비스 공급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승인함.

- 출처 : VnExpress 8.22일 -

## 신학기 시작에 따라 PC 판매시장 회복세

- 전자제품 매장 Vien Thong A를 운영하는 Hoang Ngoc Vy씨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크게 줄여 올해 연초 PC 판매량은 전년 대비 많이 감소되었다고 전함. 그러나 8월말 들어 새학기 시즌이 가까워짐에 따라 구매력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현재 신상품이 많이 등장해 이전 제품들의 세일기간과 새학기 시기와 맞물려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덧붙임.
- 주요 전자제품 유통점인 Dienmay.com, Phong Vu, Hoan Long, Nguyen Kim등의 PC 판매기록을 살펴보면 현재 긍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전자제품 유통매장 Dienmay.com의 Mr. Dinh Anh Huan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사에서 이번 8월 판매된 PC의 양은 지난달에 비해 80% 상승했다고 말함.

- 각 PC 판매점의 통계에 따르면 80%의 소비자는 대학생이며 그들은 800~1000만동 가격대의 노트북을 구입,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그 중 고등학생은 300~500만동 가격대의 테이블릿을 구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구매력 증가 이전에 많은 판매점은 할인행사와 은행을 통한 할부구매 지원하며 구매력을 촉진함.
- 구체적으로 Dienmay.com은 유명브랜드 Dell, Sony, HP사의 노트북을 200만동에 판매함. 이 행사는 고객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10일 이내에 교환 환불까지 가능했음.
- Nguyen Kim 전자제품 매장은 HP, Toshiba, Acer, Asus, Sony Vio에 200만동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판매행사를 9월 8일까지 진행 중임. 이와 함께 HSBC, Vietinbank, ANZ, Sacombank 은행과 협력하여 무이자 할부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Vien Thong A사는 Dell사와 협력해 Dell 컴퓨터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주변기기 증정 행사를 9월 7일까지 진행함.

- 출처 : Saigon Times Online, 8.26일 -

## CJ, 베트남 칠리경작 시작

- 베트남에서 식품가공, 영화, 홈쇼핑, 사료, 영화 제작에 투자한 이래로 한국의 CJ 제일제당은 Ninh Thuan 주와 협력해 경작업에도 뛰어듬.
- CJ 제일제당은 어제 Ninh Thuan 주의 농업 발달에 기여하고 고품질의 칠리 농장을 개발한다는 의미의 양해 각서를 체결함.
- CJ제일제당이 씨앗을 제공하고 농부들로부터 모든 칠리를 사들이고 Ninh Thuan 주는 발달된 기술을 농부들에게 전수하는데 협력할 것임. 동 프로젝트는 3천여명의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할 것임.
- CJ제일제당에 따르면 다른 주들의 우기는 5월에 시작해 9월에 끝나지만 Ninh Thuan은 10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 칠리 경작에 적합함. CJ제일제당은 Ninh Thuan 뿐 아니라 다른 주들과도 고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

- 출처 : Saigon Times Daily, 9.5일 -

## 사회적 책임 활동에 앞장서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베트남에서 더 친숙한 개념이 되고 있음. 이에 한국 기업들이 선두에 나서고 있음.
- 한국의 대표적인 그룹인 제일제당이 2012년에 베트남 태권도 기업을 지원한 것은 그런 노력의 하나임. 베트남 선수들은 런던 경기를 위해 한국에서 의식주가 제공된 3개월 트레이닝 코스를 제일제당으로부터 제공 받았음.
- 지난 5월 제일제당은 코치, 숙소, 원정 트레이닝, 선수 개인에 대한 포상을 포함해 베트남 여성 태권도단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발표했음.
- 롯데 또한 베트남의 스포츠를 지원하고 있는데, 롯데는 연중 TV 리얼리티 쇼인 Cau thu ti hon과 롯데리아 컵 두 프로그램을 통해 유소년층에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음. 롯데의 Cau thu ti hon은 베트남에서 가장 재능 있는 아이들을 모아 꼬마 축구단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롯데리아 컵은 50개 학교와 베트남 전역의 어린 축구 클럽들을 위한 시합을 주최함.
- 롯데리아는 또한 HIV/AIDS 예방 및 치료, 호치민 시에서 아름다운 집 짓기, 다낭의 태풍 이재민들에게 구호물자 지급 등을 실시함. 롯데의 또 다른 자회사인 베트남 롯데 마트는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해 CSR에 대한 열의를 표하기도 함.
- Jahwa Vina는 2년 전 북부 지방의 Vinh Phuc에 안착한 이래로 불우한 주민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음. 현대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베트남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를 방문하거나 분기별 모범 노동자에 대한 포상, 연말 상여금, 추수 기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사회 이타주의적 활동은 불운한 일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함. Jahwa Vina는 베트남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CSR 활동을 미래에도 연장할 계획임.
- 한국의 대표적 상업은행인 하나은행에게 CSR과 관련된 활동들은 의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자발적 활동임. 하나은행의 북방 타이빈 주의 티엔 하이 구역의 염분 늪지대에 애플 맵그로브 1000 그루를 심은 것은 베트남의 사회적 복지를 위한 것임. 그리고 호치민 시에 표준 야구구장을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도 마찬가지임.
- 한국에서 하나은행은 베-한 다문화가정에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베트남어 수업을 지원하며, 베트남어를 지원하는 창구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에 베트남어를 설치하기도 했음.
- 에버피아베트남도 다양한 공동체주의 자선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어린 심장병 환우들을 위한 한국으로의 치료 여행 자금을 지원하고 북방 Hung Yen 주의 Van Lam 구 병원에 침대 100채를 기증함. 지난 4년간 에버피아베트남은 연간 이윤의 2~3%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자선활동기금을 조성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9.2일 -

## 주요뉴스

입찰/수주/업체정보

**입찰정보: Package 1.4**  
**- Danang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Project -**

발주처	Danang Prior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Management Unit
프로젝트	Package 1.4 Danang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Project
프로젝트 규모	US\$13.62 million
계약자 선정 형식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thout prequalification
재원 출처	Loan from rld Bank and Danang City's counterpart capital
프로젝트 총체적 개요	Package Name / Package Value : Package 1.4: Supply and installation of Lien Chieu Wastewater Treatment Station Funding Source : Loan from World Bank and Danang City's counterpart capital Bidder Selection Method : ICB without prequalification Bidder Selection Time : May 2014 Contract Type : Unit Price Basis Contract Implementing Time : 24 months
진행 계획	Bid advertisement date: 2014(June) Implementation period: 2014 - 2016 Finish: 2016
발주처 연락처	
연락처	Mr. Luong Thach Vy - Director(Project Management Unit)
전화	(84-511) 3562677 - 3562679
Web / email	www.piip.danang.gov.vn danangpiip@vnn.vn danangpiip@gmail.com

## 상표 가치의 법인 자본금 현물 출자

법무법인 로고스  
정대근 미국 변호사

**Q. 상표의 가치를 법인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나요?**

A.

○ 베트남 기업법 4.4 조항에 의해 상표의 가치를 이용해 현물 출자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가치평가는 베트남에 가치평가를 하는 기관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표가치를 현물 출자하실 경우 베트남 기업법 29.1 (a) 조항에 의거해 상표 소유권을 출자한 회사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현물 출자하려는 상표가 베트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해서 출자 할 수 있는지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상표의 가치로 현물 출자하실 시 해당 관청에 문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기업법 4.4 조항

- 4. 자본출자란 기업의 소유주 또는 공동 소유주가 되기 위해 자산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 출자는 기업의 자본형성을 위해 사원 (투자자)이 자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 통화, 금, 토지 사용권, 지적 재산권, 과학기술, 기술 노하우 또는 기업 정관에 기록된 기타 자산 등이 포함된다.

○ 기업법 29.1 (a) 조항

- 1.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는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자자산의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해야 한다.

a) 등록된 자산이나 토지 사용권의 경우, 출자자는 국가기관의 수속절차에 따라 자산소유권이나 토지 이용권을 회사로 이전한다.

여기서 등록된 자산이란, 등록된 상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13. 8.20 기준 누계			2013. 1. 1~ 8.20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일본	2,029	33,059	10,798	190	1,065	3,286
싱가포르	1,180	28,670	7,439	66	2,537	1,245
대만	2,259	27,453	11,197	36	268	72
한국	3,392	25,731	8,812	209	681	309
버진아일랜드(영)	510	15,299	5,227	5	25	30
홍콩	740	12,522	3,986	38	582	66
미국	661	10,586	2,535	20	42	50
말레이시아	441	10,210	3,593	11	11	12
태국	315	6,390	2,770	20	311	20
네덜란드	190	5,935	2,544	14	39	7
케이만 아일랜드	54	5,770	1,415	2	264	
<b>전체 합계</b>	<b>15,198</b>	<b>220,665</b>	<b>76,601</b>	<b>769</b>	<b>7,405</b>	<b>5,223</b>

\* 실행금액은 정관자본금(Legal capital)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amp;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13. 8.20 기준 누계			2013. 1. 1~ 8.20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8,393	116,742	42,747	370	5,890	4,927
2	부동산경영	400	48,230	12,335	15	461	127
3	호텔, 외식서비스	340	10,623	2,768	14	114	
4	건설	976	9,793	3,608	48	116	11
5	전력, 가스, 용수제조 공급	89	7,501	1,688	2	2	
6	정보통신	884	4,033	2,245	62	81	11
7	예술 오락	141	3,664	1,075	6	3	35
8	물류운수	367	3,521	1,076	16	19	10
9	농, 임, 수산	499	3,306	1,722	8	50	-4
10	채광	79	3,197	2,591	1	15	
11	도소매, 유지보수	1,008	3,133	1,682	116	210	34
12	기술과학전문	1,426	1,425	852	96	301	34
13	금융, 은행, 보험	77	1,322	1,173	1	0.3	1
14	의료와 사회복지	84	1,304	321	3	82	
15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1	1,285	316	3	51	
16	기타서비스	123	740	155	3	8	0.3
17	교육, 양성	165	650	146	2	0.5	36
18	행정, 지원 서비스	116	194	101	3	0.4	
	<b>합계</b>	<b>15,198</b>	<b>220,665</b>	<b>76,601</b>	<b>769</b>	<b>7,405</b>	<b>5,223</b>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Aug, 2013)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0	2011	2012	2013.8월(*)
수 출	721.9	969.1	1,145.7	848.2
수 입	848.0	1,067.5	1,137.9	854.0
무역수지	-126.1	-98.4	7.8	-5.8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8월(*)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6,886	12,717	13,051
섬유/직물제품	11,210	14,043	15,093	11,502
전기제품	3,590	4,670	7,838	6,779
신발류	5,122	6,549	7,262	5,525
원유	4,958	7,241	8,229	4,852
수산물	5,016	6,112	6,093	4,009
기계/플랜트 및 부품	3,057	4,160	5,537	3,828
수송수단 및 부품	1,578	2,354	4,580	3,464
목제품	3,436	3,955	4,666	3,368
쌀	3,248	3,657	3,673	2,162
기 타	30,977	37,279	38,885	26,279
합 계	72,192	96,906	114,573	84,81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8월(*)
기계/플랜트 및 부품	13,691	15,342	16,037	11,833
전자제품 및 컴퓨터	5,209	7,974	13,111	11,454
의류(원단)	5,362	6,730	7,040	5,468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	5,042	5,163
유류제품	6,078	9,878	8,959	4,566
철강제품	6,155	6,434	5,967	4,453
플라스틱 원료	3,776	4,760	4,804	3,701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2,621	2,948	3,160	2,455
사료 및 원료	2,173	2,373	2,456	2,090
기타금속	2,523	2,697	2,632	1,912
기 타	24,604	37,770	45,365	32,302
합 계	84,801	106,750	113,792	85,39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6월
1	미 국	14,238	16,928	19,668	10,889
2	일 본	7,728	10,781	13,060	6,300
3	중 국	7,309	11,125	12,388	6,104
<b>4</b>	<b>한 국</b>	<b>3,092</b>	<b>4,715</b>	<b>5,580</b>	<b>3,042</b>
5	말레이시아	2,093	2,832	4,496	2,434
6	독 일	2,373	3,367	4,095	2,352
7	UAE	508	922	2,078	1,968
8	영 국	1,681	2,398	3,034	1,760
9	홍 콩	1,464	2,206	3,706	1,600
10	태 국	1,183	1,792	2,832	1,585
	기 타	30,435	39,639	44,511	23,505
	합 계	72,192	96,906	114,573	61,53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6월
1	중 국	20,019	24,594	28,786	16,872
<b>2</b>	<b>한 국</b>	<b>9,761</b>	<b>13,176</b>	<b>15,536</b>	<b>9,901</b>
3	일 본	9,016	10,400	11,603	5,517
4	대 만	6,977	8,557	8,534	4,341
6	태 국	5,602	6,384	5,792	2,981
5	싱가포르	4,101	6,391	6,690	2,943
7	미 국	3,767	4,529	4,827	2,614
8	말레이시아	3,413	3,920	3,412	1,968
9	인 도	1,762	2,346	2,161	1,432
10	독 일	1,742	2,199	2,377	1,343
	기 타	18,641	24,254	24,074	12,560
	합 계	84,801	106,750	113,792	62,47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0	2011	2012	2013.7월
수 출	9,652(35.0)	13,551(40.4)	15,946(18.4)	11,729(33.0)
수 입	3,330(40.5)	5,084(52.6)	5,718(12.5)	3,805(32.4)
무역수지	6,322	8,467	10,236	7,92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KOTIS)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7월
전자부품	275(127.5)	1,345(389.0)	3,626(169.6)	2,950(52.4)
산업용전자제품	878(134.8)	1,553(77.0)	1,282(-17.4)	1,378(158.5)
직물	1,144(18.4)	1,424(24.4)	1,505(5.8)	1,036(20.1)
석유화학제품	962(42.1)	1,219(26.7)	1,294(6.1)	880(20.1)
철강제품	1,431(80.3)	1,763(23.2)	1,468(-16.7)	854(-5.8)
중전기	117(80.8)	307(161.6)	569(85.1)	541(98.8)
비철금속제품	367(59.7)	487(32.7)	553(13.6)	401(44.6)
수송기계	944(-15.6)	1,063(12.6)	704(-33.7)	391(-8.3)
산업기계	443(43.3)	422(-4.8)	426(1.0)	356(35.9)
정밀화학제품	382(30.1)	465(21.9)	503(8.0)	311(10.4)
기 타	2,709	3,503	4,026	2,631
합 계	9,652(35.0)	13,551(40.4)	15,956(18.4)	11,729(33.0)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단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7월
섬유제품	491(64.0)	977(99.1)	1,255(28.5)	777(41.2)
광물성연료	767(33.2)	1,124(46.6)	987(-12.2)	708(93.7)
신변잡화	173(38.9)	267(54.3)	330(23.6)	247(26.9)
수산물	376(23.3)	481(27.9)	506(5.2)	238(-12.1)
전자부품	51(198.1)	122(139.9)	259(111.9)	234(144.7)
농산물	124(-11.8)	246(99.1)	346(40.6)	207(-1.3)
임산물	189(104.5)	268(41.6)	277(3.3)	182(18.5)
비철금속제품	52(85.5)	92(78.0)	136(47.7)	148(121.2)
산업용전자제품	119(33.5)	166(39.5)	219(32.4)	145(17.6)
섬유사	270(43.8)	316(17.0)	233(-26.2)	142(4.9)
기 타	719	1,025	1,171	777
합 계	3,331(40.5)	5,084(52.6)	5,719(12.5)	3,805(32.4)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단위 기준)

## 해외진출기업의 현지국 아동 인권 보호 안내 등 협조요청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12.3.30확정)에 따라 정부 각 관계 부처는 그 이행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계획 시행의 일환으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아동 권리 교육(해외진출기업이 해외진출시 진출국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안내)을 담당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한글판)을 제공하오니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 첨 부

- [http://infomailer.kotra.or.kr/20130826/UN\\_Childs\\_Right.hwp](http://infomailer.kotra.or.kr/20130826/UN_Childs_Right.hwp)
- <http://infomailer.kotra.or.kr/20130826/UN%20Childs%20Right.hwp>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하노이무역관 고문변호사/회계사 현황**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변호사	84-4-3724-5201	<a href="mailto:lawyerpys@jnplaw.com">lawyerpys@jnplaw.com</a> <a href="mailto:lawyerpys@hanmail.net">lawyerpys@hanmail.net</a>	법률
고문회계사	엄진용	이정 회계법인/ 회계사	84-4-3556-0470	<a href="mailto:uhmcpa77@e-jung.co.kr">uhmcpa77@e-jung.co.kr</a>	회계

**KOTRA 호치민무역관 고문변호사 현황**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직위	Tel	Emai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정대근	법무법인 로고스	84-8-3822-7161	<a href="mailto:dkchung@lawlogos.com">dkchung@lawlogos.com</a>	투자 · 지적재산권
고문변호사	고인선	법무법인 JP/ 변호사	84-8-3910-0619	<a href="mailto:isgo@jnplaw.com">isgo@jnplaw.com</a>	노동법규

**◎ 고문변호사 무료 상담**

- 하노이: 월 2회(매월 2주, 4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고문변호사 대면 상담
  - 담당자 : 김경돈 대리([kimkdon@gmail.com](mailto:kimkdon@gmail.com))
- 호치민: 월 1회(매월 2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고문변호사 대면 상담
  - 사전 예약시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질문 내용에 대해 사전 송부 요망
  - 담당자 : 노동욱 대리([kotrasgn@hanmail.net](mailto:kotrasgn@hanmail.net))

**◎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중소· 중견 기업
- 문의처: KOTRA 호치민무역관 심형찬 ([713247@kotra.or.kr](mailto:713247@kotra.or.kr), (T)84-8-3822-3944)

**◎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 현지경영 애로사항 접수 (베트남 총리실 공동추진)**

=> 김경돈 대리, (T)84-4-3946-0511, (F)84-4-3946-0519, [kimkdon@gmail.com](mailto:kimkdon@gmail.com)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전용 구인구직 웹사이트 운영(무료)**

[www.workwithkorea.com](http://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http://www.workwithkorea.com.vn))

**◎ 코트라 한-베 취업 카페**

<http://cafe.naver.com/kotrahochiminh>

▶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 『OIS』 안내



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해외 투자진출 정보 포털은 『OIS』 밖에 없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투자진출 정보를 One-Stop 서비스합니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P, KIET 등 31개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Q&A까지

국가 기본정보에서 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 해외진출에 필요한 단계별, 국가별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내절차는 물론 국가별 투자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실 > 해외투자Q&A](#)'에 올려 주세요.

-----

OIS([www.ois.go.kr](http://www.ois.go.kr))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관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해 2007년 범정부 차원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진출정보포털 사이트입니다.